



#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

정원석 연구위원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음. 환류세제의 내용은 기업소득을 가계로 이전시키고 이전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당기순익에서 투자, 임금인상분, 배당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금이 과도할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하지만, 보험회사 소득에 대한 환류세제 적용은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세제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보험회사의 현금보유에 대한 과세는 미래 위험에 대비한 충분한 지급여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회계연도에 법인세 부과 시 납부환류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공제 방식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企業所得 還流稅制, 이하 “환류세제”)가 시행 중 임.
  - 환류세제의 핵심은 당기순익의 일정액을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잉여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임.
  - 환류세제의 도입목적은 투자, 임금 인상, 배당 증대를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함임.
    - 기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배당 등의 형태로 가계로 되돌아가도록 하여 국민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임.
-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특성에 따라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과세대상기업은 기업 특성에 따라 아래 과세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 ㉠ [당기순익 × 60~80%( $\alpha$ )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 ㉡ [당기순익 × 20~40%( $\beta$ )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 기업의 특성상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 방식을,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투자로 인정되는 항목은 차량, 운반구 및 기계장치 그리고 업무용 부동산 등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개발비 상표권 등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됨.
-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한 유·무형의 고정자산 활용 비중이 크지 않은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환류세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 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큼.
- 또한, 고용자 우위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환류세제 적용의 효과가 임금 상승보다는 투자 혹은 배당 확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보험회사 소득에 대한 환류세제 적용은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세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 향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안전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특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은 고정자산에 투자하여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함.
- IFRS17 회계기준 강화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추가부담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함.
  - 보험회사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내에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급여력 및 회계기준 강화로 인해 보험회사 자본 확충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불식시키기 위해 환류세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납부한 환류세액에 대해 차기 회계연도 법인세 부과 시 동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공제(tax carry forward)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을 위한 자본금 보유는 제조업의 재고 확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류세 납부액을 지급여력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kiri](#)